

93.6.15

東

亞

日

報



소년자원보호자協 조사

「당신의 자녀도 가출할수 있습니다」부모의 잔소리를 들을때, 좋은 성적을 강요 받을 때나 남과 비교, 차별 된다고 느낄때 가출충동을 받는 청소년들은 의외로 많다.

서울 가정법원 소년자원 보호자협의회는 14일 제 8 회 청소년상담세미나를 열고 수도권지역 중고생 1 천24명과 비행청소년 3백 22명을 상대로한 청소년가 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, 이의 대책등을 토론하는

문화공간 시설이 전무하다 시피한 상태에서 무작정한 가출은 청소년을 비행에 빠뜨리는 한 계기가 되기 쉽다.

조사에 응한 비행청소년 들중 82%가 한번이상 가 출을 해본 적이 있으며 다섯번 이상 해보았다는 청소년들도 전체의 35%였다.

가출이후 갈 곳이 없는 이들은 주로 친구집 (49.6 %)에서 생활하며 빈집이 나 여관 (23.6%) 거리 (16.7%)에서 생활한다는 청소년들도 상당수였다.

한편 이날 세미나에서

중고생 78% “가출충동 느꼈다”

이유 부모와 의견대립-성적문제順

자리를 마련했다.

이 조사에 따르면 일반 중고생들중 가출충동을 느 낰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77.7%.

이들은 「부모와 의견이 대립될 때」(34.7%)、「공 부 성적문제로」(27.7%)、「사회구조 모순」(17.9%)、「이성문제」(11.9%) 등으로 가출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응답했다.

가출을 할 경우 가장 하고싶은 일은 여행 (2백47명)이며 돈벌이 (1백86명) 나 휴식 (51명)을 하고싶다는 학생들도 있었다.

그러나 청소년을 위한

「가정과 청소년가출」을 발표한 李相純「나눔의 집」청소년상담소장은 가출청소년을 위한 대책으로△이들을 위한 쉼터의 확대설치 △각 학교에서 문제학생의 제적을 되도록 유보해줄것 △오전에는 학력지도를 하고 오후에는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특수교육시설의 설치등을 제안했다.

(金熹暲)

